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복지선교회 소망의샘터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 2019 겨울호 **샘터사랑들**



21037/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1 KT&G 408호 (계산동 935-6)  
T.(032)541-4737 / F.(032)541-4738 / <http://www.ever.or.kr>

주식회사 **우일**



# CONTENTS

- 03 감사인사 /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지영
- 04 IN NEWS / 신문기사 [ 틈새없는 가정 나눔사업 성금기탁 ]
- 05 IN NEWS / 협약식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협약식 ]
- 06 시설 동정  
제1센터. 아름다운 나눔속에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한마당 운동회  
제3센터.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제2센터. 후회와 반성으로 빈곤을 넘어 자립으로.  
외로운 노인들 / 화려한 외출!
- 10 실천하는 아름다운 나눔 / 나누니 기쁨이 두배
- 11 행동하는 아름다움 / 행복한 땀!
- 12 기획-전문가 기고 / 수형자 취업지원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 13 후원자님을 찾습니다.
- 14 기관별 약도
- 15 후원안내 및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지영

곡식이 무르익는 가을이 지나고,  
아름답지만 황량한 겨울이 시작  
되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이  
더욱 더 걱정되고 생각나는 계절  
입니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과 극빈가정 또는 위기가정을 찾아 그들 가정에 국가에서 주는 최소한의 혜택이라도 누리고 받을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하다보면 1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희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힘을 모으기 위한 행사로 지난 8월 소망의샘터와 계산2동 보장협의체(사랑의열매)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소망의샘터는 저희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더불어 어려운 이웃의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함께 힘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의샘터는 다년간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꾸준한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역특성상 후원에 둔감한 지역민들의 실정으로 현장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실무자 또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결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망의샘터의 노력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후원자님들에게 2019년에도 나누고 베풀어 주심에 감사의 뜻을 지면으로나마 전합니다. 소망의샘터의 이웃과 함께 하는 노력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내고 봄이 오면 푸르른 새싹과 함께 지역사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망의샘터가 지역사회의 따뜻한 계절의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해나가길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한해동안 너무나 감사했고, 또 새해에도 소외되고 힘없는 이웃들에게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인천 [ 세계로컬핫뉴스 ] 소망의샘터, 틈새없는 가정 나눔사업 성금 기탁

소망의터는 지난 8월6일 계산2동 행정복지 센터에 「틈새없는 가정 나눔 결연사업」에 성금 14,280,000원을 기탁했습니다.

인천시형 공감복지 사업인 「틈새없는 가정 나눔 결연사업」은 후원자가 지역내 저소득 취약가정과 결연을 하여 매월 일정액의 현금이나 물품등을 인천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망의샘터는 계산2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선교회로 노인, 장애인, 청소년, 노숙자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 및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정기적으로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2017년에도 「천사가정 사랑의연약사업」에 참여하여 성금 828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최희용 대표 회장은 “이번 성금기탁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과 후원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계산2동 이범우 동장은 “소중한 성금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CEREMONY!



이날 기탁된 성금은 계산2동의 어려운 가정 33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계산2동 보장협의체(위원장 이상철)는 지난 7월 24일 계양산지구대, 계산119안전센터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6일 후원금 기탁식을 진행하며, 소망의샘터와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하였다.

금번 협약으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에 더욱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계산2동 보장협의체(위원장 이상철)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써 주민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전문은 지난 8월에 계산2동 동사무소에 성금 전달식과 관련해서 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저의 소망의샘터는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과 후원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샘터**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소망의샘터가 되겠습니다.





# COOPERATION!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협약식!

**계속해서 따뜻한 손길과 후원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  
적으로 관심을 갖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소망의샘터는 지난 8월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보장협의체 (사랑의 열매)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정부에선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상에 빛지기 싫다는 사람과 방법을 몰라 요청하지 못하니 지원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끝내는 가정이 늘고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의 파장으로 소위 "세 모녀 법"이라는 별칭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 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발굴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또는 경찰서 등의 기관 및 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관련정보의 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정보를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고,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보호대상자에 대해 조사·상담, 안내

의뢰하며, 보호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보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며, 이들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직원을 두도록 하며,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모,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의 발굴, 의뢰, 신청, 조사, 결정, 보호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 그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다.

**이에 관련하여 3개기관이 협력하여 관내 위기가정 발굴, 신고, 그리고 지원에 힘을 함께 모으기로 위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 제1소망의샘터 사랑의집 에덴

## 아름다운 나눔속에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한마당 운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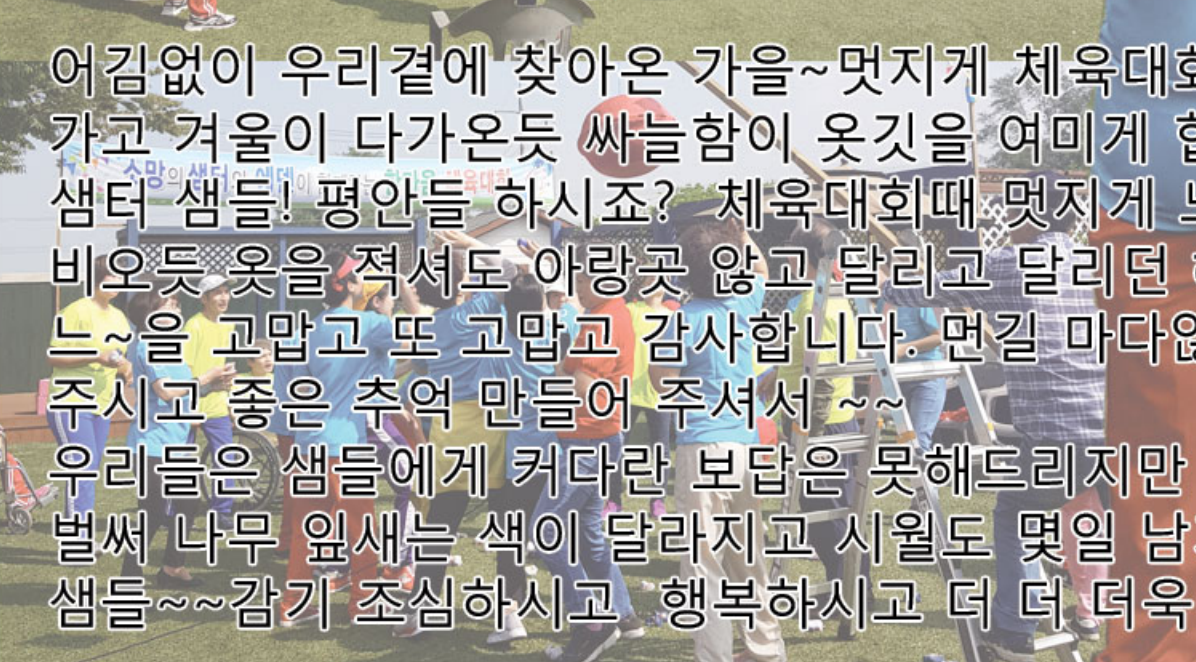
10.4일!  
 운동회 전 날까지만 해도 태풍 때문에 마음을 졸였었는데 날씨는 정말 화창했습니다.  
 식구들의 건강 유지 및 발달, 협동심과 연대 의식 고취 등을 위한 행사 활동으로서 1년에 1회씩 운동회를 개최하는 사랑의집에덴 앞마당에서의 운동회!  
 하늘은 맑고 드높고, 기온은 따듯해서 맘껏 뛰놀고 목청껏 응원하기 딱 좋았습니다.



먼저 학교다닐 때 운동장에서 많이 하던 국민체조로 몸을 푼다음..^^  
 돌이 짝지어 공 굴리고, 돌이 발 묶고 함께 걷고, 짝꿍과 포옹하여 손대지 않고 풍선 터트리고(승부욕이 부른 반칙이 남발), 손대지 않고 과자따서 먹고, 처음 해본 경기라 어수선 했던 피구..  
 그리고 마지막을 알리는 박 터트리기..  
 박속에선 달콤한 초콜릿과 과자가 터져 나와 모두가 함성을 지르며 달콤함을 끝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식구들 모두 상기된 얼굴로 경기 내내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당 한켠 화로에선 1주일전에 캔(고구마는 캐고 1주일 지나면 제일 맛있어 진다고 함) 고구마 구워지는 냄새로 코까지 행복했던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내년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그날의 함성을 추억합니다.



어김없이 우리곁에 찾아온 가을~멋지게 체육대회 하고 가을 나들이도 해야지~하고 맘 먹은사이 벌써 저만치 가고 겨울이 다가온듯 싸늘함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샘터 샘들! 평안들 하시죠? 체육대회때 멋지게 노래숨씨를 보여주시던 회장님을 비롯 과장님, 글구 땀방울이 비오듯 옷을 적셔도 아랑곳 않고 달리고 달리던 혜원,미영,려원,선자샘 등등 ..... 모든 샘들 ...^^  
 느~을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길 마다않고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 식구들 한사람 한사람 보듬고 사랑해 주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우리들은 샘들에게 커다란 보답은 못해드리지만 항상 마음으로 기도로 응원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벌써 나무 잎새는 색이 달라지고 시월도 몇일 남기지 않았는데 11월을 또 기대하며 샘터 샘들을 기다립니다.  
 샘들~~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고 더 더 더욱 건강하세요~ 한상빈. 2019-10-27 [16:44]





### 제3 소망의샘터 참조은친구들

2019년을 돌아보며...  
년초의 새로웠던 마음을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새로운 년초를 다짐합니다.

장애에 묶여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환우들이나, 그들을 돌보느라 묶여있는 직원들이나 하루하루가 너무 단순하고 뻘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세월이 속절없이 흐르는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군요,

그래도 특별히 큰 사고나 어려움 없이 증상 진전이 미미한것 또한 너무감사한일이죠.

국내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지정책에서 그 기초를 유지하는 것에서 부터 민간후원단체들의 열정적인 후원사업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마음을 안심케 하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소망의샘터 과장님이나 선생님들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안심과 희망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샘터와 연결되어있는 모든 노인, 장애인, 어려운 이웃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한해를 미리 준비하는 시간들을 잘 가지시기를 기원 하면서 감사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이네요  
저희들 자주가는 가을이 아쉬워 자주가는 인천대공원 나들이 갔다 왔어요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의외로 단풍이 예쁘네요.

떨어진 단풍으로 온통 뒤덮이는 11월이면 더욱 장관이라서 그때 다시한번 와야겠네요.

소망의샘터 샘들과 과장님 가을 잘 지내시구요.



오랜만에 참조은식구 영화관 나들이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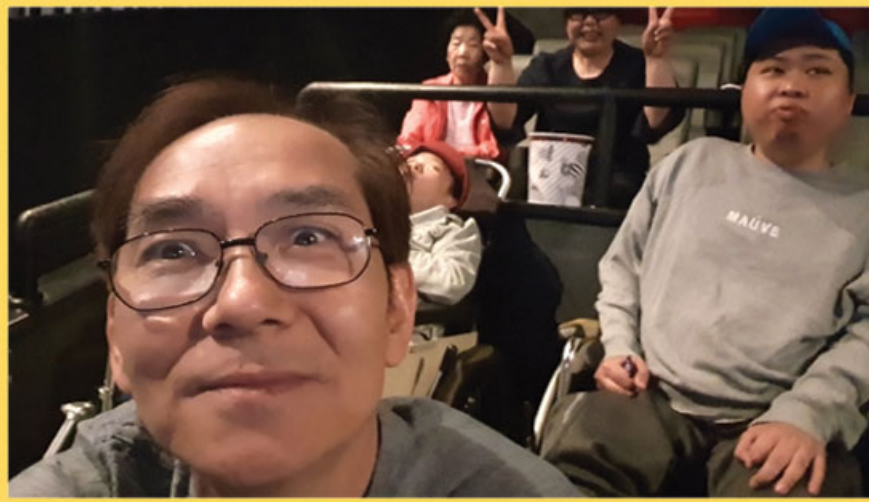
이른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 못하다가 날이 좋아지면서는 야외로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영화관에는 아주 오랜만에 왔답니다

“나의 특별한 형제” 장애인 관련 영화였어요.

예능에 자주나오는 이광수씨가 발달 장애인 연기를 했는데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흐흐흐흐

이제 곧 더워질 것 같아서 살짝 걱정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또 만나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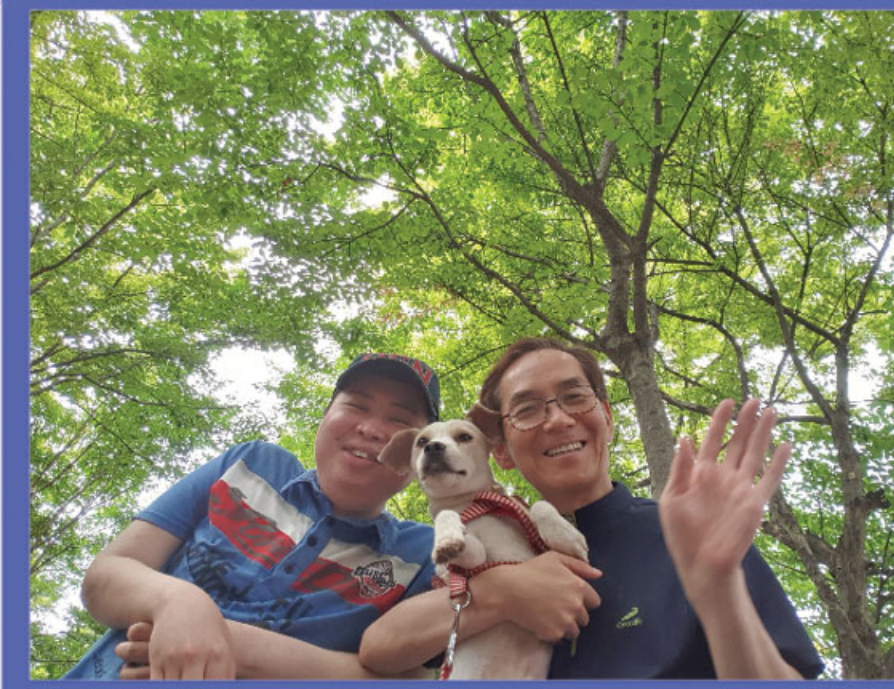


더위에 여전히 수고하시고 계실 샘터 과장님과 샘들 안녕하시죠? 우리 참조은친구 식구들도 덕분에 잘들있어요.

늘 고마운 마음 전할길없어 행복한 미소 보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내내 즐겁게 마음 건강도 안녕하시기를 늘 기도할게요.

뽕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늘~ 고마운 마음 전할길  
없어 행복한 미소  
보냅니다. ^^ ♥

자주가는 월미도 였지만 엘리베이트 있는 식당에는 처음 가봤네요^^ 거의 반년만에 만나는 장애우들과 봉사자님들도 반가웠어요.

선생님들은 여전히 친절하시고 봉사정신 투철하셔서 좋았어요

특히 나(제일)를 먹여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구백^^

해물탕에 모듬회 시리즈로 나오는 음식에 실컷 먹었어요

정혜누나도 누운자세로 많이 먹더라고요  
구요 흐흐

원장님, 사모님도 오랜만에 회 드셔서 행복하셨대요.

식사후 바닷가에 나가 단체사진도 몇장 찍고 끼욱 끼욱 울어대는 갈매기 소리 정겨운 등대길을 돌아왔답니다

다른 장애인들이 차량문제로 먼저 가버리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튼 너무 너무 즐거운 하루였어요.

다음 모임기다리며 열심히살아야 겠어요. 선생님들 과장님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히~.







후회와 반성으로 빈곤을 넘어 자립으로...

최옥숙 원장님과 이운안 회장님의 보살핌으로 점차 갱생되어가고 시설에서의 작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일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점차 소소한 꿈(회사에 취직하고싶고, 원장님께 인정받고 싶고 등등의)도 자라고 있습니다.

취업 등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식구들의 모습은 희망입니다.

식구들 모두는 출소자라는 빨간 딱지와 장애인(정신적, 신체적)라는 주변의 편견과 선입견의 냉대를 이겨내야만 하는.., 그들에겐 자립과 취직이라는 길은 넘사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소한 수용자들이 사회의 냉대를 이기지 못하고 또 다시 재범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출소한 수용자들의 재범을 막기위해선**

**첫째,** 사회정착 지원기관에서 체계적인 멘토 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둘째,** 체계적인 진로직업설계를 위해 보호시설 및 사회정착 지원 기관에서 적성과 요구에 기반을둔 진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셋째,**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보호시설 및 사회정착 지원 기관에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하며,

**넷째,** 보호시설 및 사회정착 지원기관 자체의 전문성 제고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은 빵 몇 개 훔친 죄로 19년이 넘는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했으나, 사회의 냉대로 인해 주린배를 채우려고 성당에서 은촛대를 훔쳤지만 신부님은 경찰에게 그 은 촛대는 내가 준 것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출소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내 형제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우리 사회는 훨씬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시설 동정]외로운 노인들

산과 들은 오색단풍으로 물들고 하늘은 맑고 깨끗했던 가을날에  
노인들과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외출!



날씨 좋은 가을 날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식사한끼 대접에도 니들이 자식이라고 눈물 보이셨던  
어르신들을 떠올리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결과는 대만족...너무나 좋아하셨던 노인들...^^

다리골절로 깁스를 하시고 계신 어르신,  
기력이 딸려 동네 마실도 못 다니신다는 어르신,  
폐지 주워 생활하셔서 하루도 놀지 못한다는 어르신,  
노인 공공일자리에 하루라도 빠지면 큰일난다고 늘 노래처럼 말씀하셨던  
어르신,  
허리 다리 아프셔서 보행 차 없이는 못 다니시는 어르신,  
하지만...  
깁스하셨던 어르신은 깁스 풀었으니 보행차만 있으면 천천히 걸을수 있다고  
애원 아니 애원을 하셨구.  
허리 다리 아프셔서 못 가실 거라 생각했던 어르신은 침 맞고 가겠다고..,  
공공일자리에 나가시는 어르신은 하루만 사정하면 될거라고..,  
삼십 년 전 돈 벌어 오겠다며 소식이 끊긴 자식을 둔 어르신은 소망의샘터  
아니면 어떻게 나들이를 꿈 꺾 보겠냐고 하시며...눈물까지...ㅠ  
의중을 듣고자 전화 드렸을 땐 이미 가는 걸로 결정 해야 했습니다.ㅋㅋ

먼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노인들이 좋아하시는 돼지갈비로 배를 채운  
다음 예쁘게 물든 산책로를 삼삼오오 손잡고 걷기로 했습니다.  
걷기 힘든신분들을 위해서 휠체어 세 개를 빌려 교대로 앞게 해 나들이를  
맘 꺾했습니다.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과, 알록달록 예쁜옷으로 갈아 입은 나무들과,  
화려한 가을꽃들의 화사함으로~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꽃들과 나무와 호수와 그리고 멋진 풍경 앞에선 저마다 소녀 같은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쓸거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어르신들과 첫나들이!!  
봉사자의 숫자가 역부족이라 힘들고 신경 쓸 일도 많았지만 아이들처럼  
좋아하셨던 노인들을 떠올리니 올해도 좋은 일 제대로 한 것 같은 착각을  
진하게 한 나들이였습니다.^^





**실천하는 아름다운 나눔 나누니 기쁨이 두배!!**



**월드비전 회장 양호승 님**

소망의샘터 후원자님 안녕하십니까?

월드비전을 통해 아동과 마을이 스스로 살아가는 진정한 후원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자님께서 관심과 사랑이 담긴 후원을 통해 내일을 꿈꾸기 어려운 아동에게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준비하여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해당 사업이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비전은 후원자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가정과 마을의 자립을 통해 아동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월드비전 회장 양호승 **양호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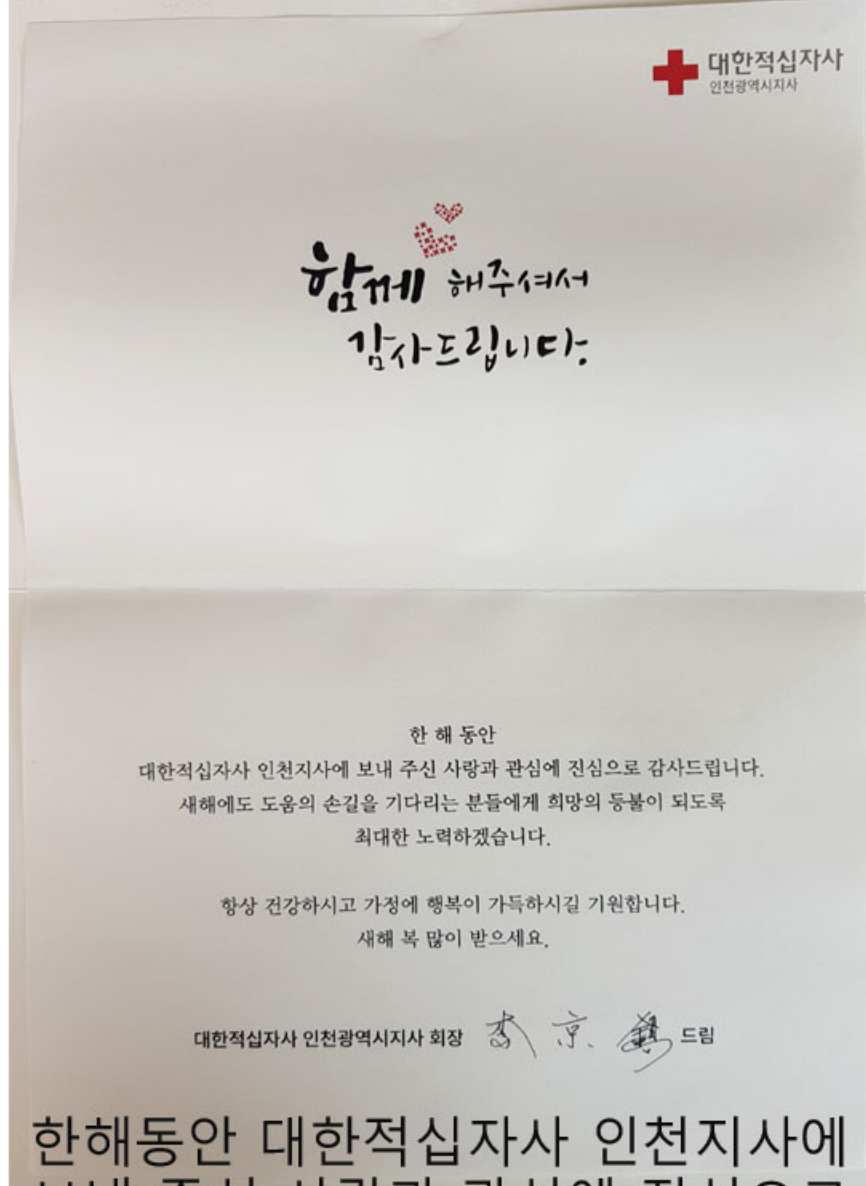
국제구호개발기구 NGO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1억 명의 저소득 어린이와 이웃을 위해 일합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아동과 마을이 스스로 살아가는 진정한 후원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자님께서 관심과 사랑이 담긴 후원을 통해 내일을 꿈꾸기 어려운 아동에게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월드비전 회장 양호승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이경석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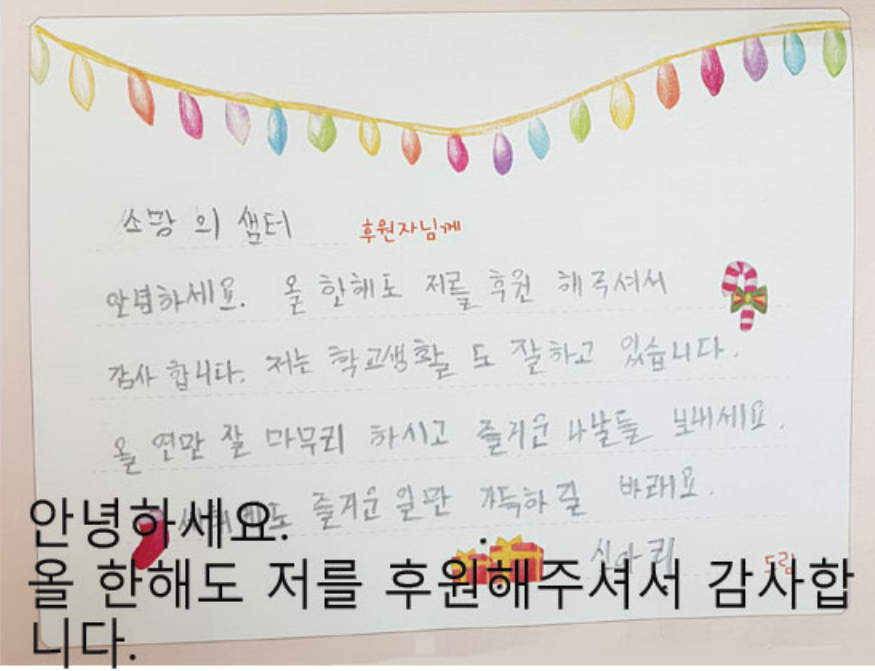


한해 동안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보내 주신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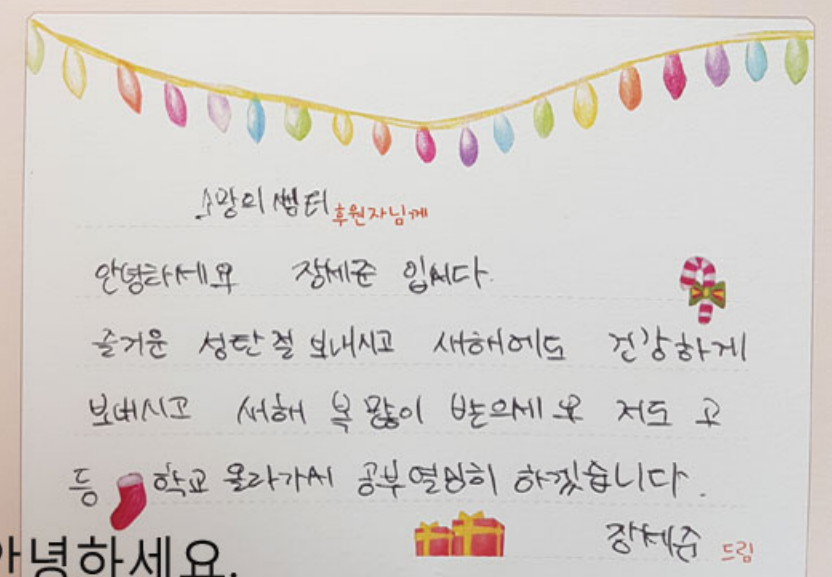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이경석 드림

**신아리 학생**



저는 학교생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나날들 보내세요. 새해에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신아리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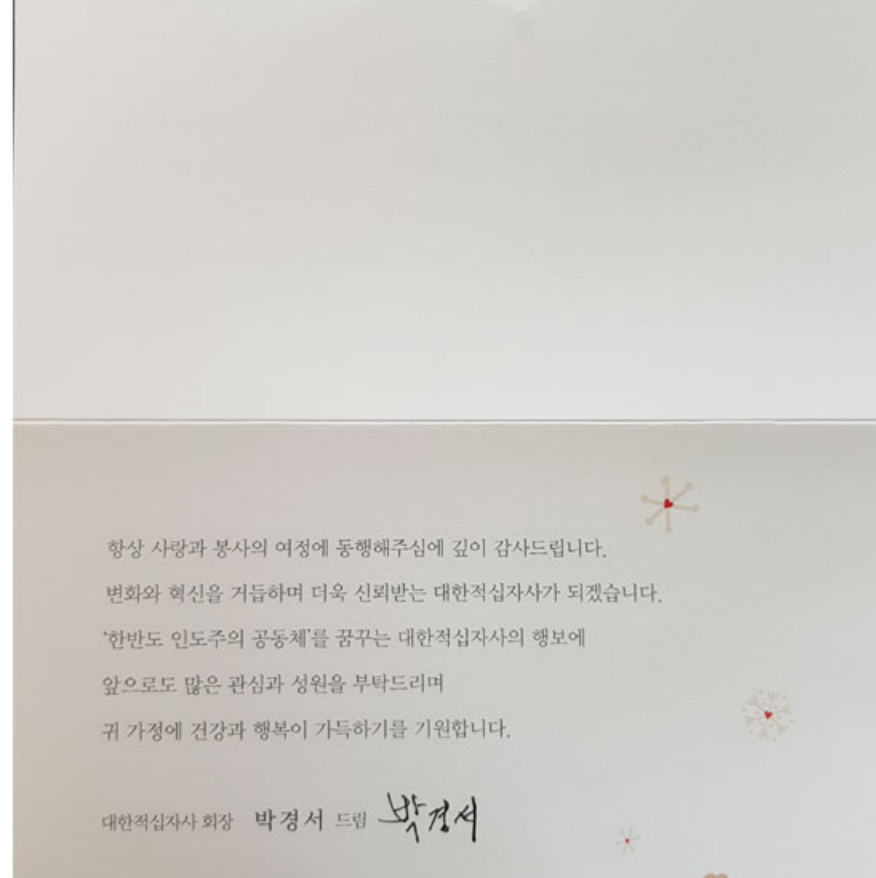
**장세준 학생**



안녕하세요.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준 드림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경서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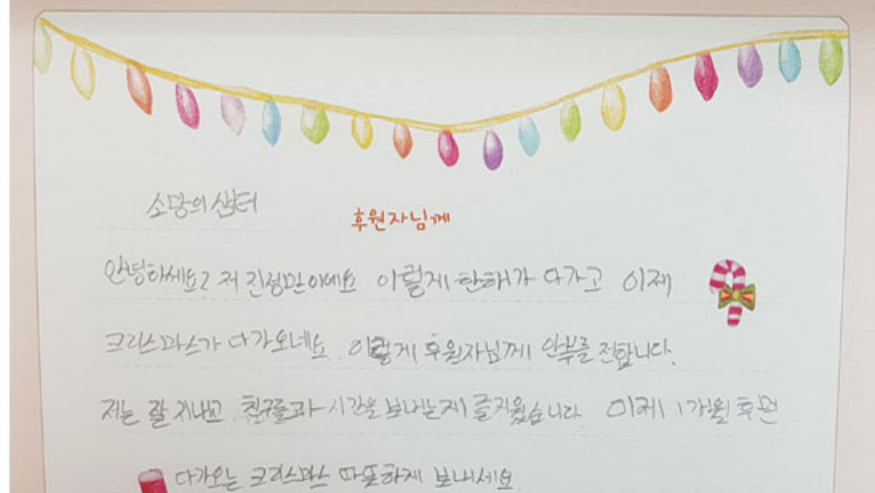


항상 사랑과 봉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더욱 신뢰받는 대한적십자사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인도주의 공동체'를 꿈꾸는 대한적십자사의 행보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경서 드림

**진성만 학생**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해가 다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이렇게 후원자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게 즐거웠습니다.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보내세요. 진성만 드림



[행동하는 아름다움]

봉사자들의 땀방울이 클수록 노인들과 시설 식구들의 행복도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도 커집니다 ^^



돌아보니 올 한 해 동안 도 숨가쁘게 지나왔습니다. 설명절 독거노인 떡과 기관들 떡국과 한과 나눔, 어버이날 독거노인 식사와 사랑의집과 근육병환우시설 봄 야유회... 여름 동안은 식구들 보양식으로 건강 챙겨드리고.. 더위가 한풀 꺾일 즈음 사랑의집 아이들과 체리밭 체험, 추석명절 외로울 노인들 가정에 선물을 안겨드리고, 사랑의집 운동회와 노인들 가을 나들이, 근육병환우들 나들이.. 그리고 출소자시설 가을걷이와 사랑의집 가을걷이.. 겨울엔 푸짐한 김장준비로 노인들 가정과 시설에 겨울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더위와 그리고 겨울 추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로 인해 시설식구들과 독거노인들이 2019년도 무사히 잘 보내는데 일정부분 일조 하였음에 칭찬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굵은 땀방울을 누군가에겐 갈증 때 단비와도 같다는 걸 잊지말고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으로 내년 에도 소명감으로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전문가에게 듣다.

### 수형자 취업지원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연고가 없는 수형자들은 교도소에 있을때보다 출소하면서부터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당장 먹는것도 어렵고, 취업이 확정되었다더라도 첫 월급이 나오기전까지는 숙소문제를 비롯해 생활에 곤란을 겪게되죠. 그것을 못 견디면 취업한 곳에서 이탈하거나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구요.

그래서 이운안 회장은 수형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출소이후관리에 정성을 다 합니다.

취업지원이 단지 직장을 알선하는 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까지 이어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소를 하자마자 우선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필요한 물건은 무엇인지, 옷은 계절에 맞게 있는지, 작업화는 있는지 확인해 보고 준비도 해줘야 하구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출소자를 관리한다는게 쉽지는 않지만 **의정부교도소의 성과가 뛰어난 것은 경기북부지역의 기업인, 변호사, 금융기관장, 전문위원, 취업위원과 소장 및 과장 등 34명으로 구성된 “수락골닝쿨회”**가 나서서 수형자가 취업에서부터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생필품을 제공해 주고 첫 월급이 나올 때까지 20~3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차용형식으로 지원하는 등 관리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소자들을 등한시 하게 되면 그들은 또 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취업욕구가 강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일정업체를 선정하여 취업조건부 가석방을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정기관과 보호관찰소, 그리고 취업위원들이 철저히 그들을 공동 관리하여 가석방 기간에 취업 태도를 파악하여 가석방을 유지하거나 취소하게 하면 가석방자의 재범률도 낮추고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정부교도소 수락골닝쿨회, 제2소망의샘터 / 이운안 회장





## 후원자님을 찾습니다.

저희 소망의샘터에 정기적으로 매달 후원해 주시는 선생님과 비정기 또는 1회성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걱정이 된다고 전화 주시는 선생님, 더우면 덥다고 걱정해 주시는 선생님, 다른 기관에 불미스런 일로 뉴스에 나오면 불뚱이 우리에게도 미칠까 전전긍긍 걱정해 주시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소망의샘터는 이제 16년생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묵묵히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3개시설 식구들 뿐만 아니라 지역 독거노인과 위기가정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국의 위기가정 돕기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 그런지 후원의 손길이 많이 줄어들긴 하였어도 적게라도 나눠쓰니 그마저도 귀한 일입니다.

귀한 후원금을 전해주셨는데 누구인지 저희들에게 정보가 없으니 연락 할 수 없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인사와 아울러 소식지와 절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마음입니다. 꼭 연락주세요.

※ 존칭은 생략했습니다.

김영임 김선애 권영중 권익현 김경섭 김다은 김동진 김보아 김선자 김영임 김정애 김지유  
 라경옥 문도삼 박윤경 박준규 서명석 안경희 여재원 이기술 이막래 이방례 이상현 이상훈  
 이영준 이준석 장남주 장애우 전미선 전민정 전지현 차경애 황재식 주식회사 제이브로플  
 호림건설주식회사 (주)영진그린식품 대한예수교장로 (주)돌집

그밖에

기도합니다 소망 소망의샘터 작은정성보탬니다 기부 일신 애들맛있는거사주 소망의집  
 편지감사해 급여 행복하세요

위에처럼 입금해 주시면 확인이 어려워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이 불가능 합니다.

꼭!!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선생님의 성함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TEL:(032)541-4737  
 FAX(032)541-4738  
 www.ever.or.kr



**소망의샘터 각 시설 위치를 소개합니다.**

**제1기관(장애우시설)사랑의집에덴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589-5번지**



**제2기관(출소자 및 부랑아시설)파주소망의샘터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502-4**



**제3기관(근육병환우시설)참조은친구 : 인천시 서구 가좌4동 혜동빌라 102호**



TEL:(032)541-4737 / FAX(032)541-4738



## 1. 사/랑/의/손/길을 기다립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원장님과 사모님이 아빠, 엄마인줄 알고 지내는 아이들과 늙고 병들어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누구도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않아 노후를 많이 외롭게 보내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장애우가 교도소를 다녀왔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재범을 되풀이 하는 출소자들을 위해 안식처를 만들어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지병으로 사는게 고통인 이들에게 살맛나는 세상,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데 힘을 보내주세요.

## 2. 소/망/의/샘/터 회/원이 되시면.

- 소망의샘터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 소망의샘터에 관련된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의 10%내에선 100%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www.ever.or.kr](http://www.ever.or.kr))을 통해 소망의샘터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3.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 무의탁 노인
-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
- 보호자가 있으나 여러가지 형편상 위탁이 불가피 하신 분들은 (032)541-4737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입소를 도와드립니다.

## 4. 기부금영수증 발급

발급받은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홈텍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기존 은행용으로 발급받은 것도 사용할 수 있음)로 로그인하여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소망의샘터에서 만들어갑니다. 



<http://www.ever.or.kr>/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 후/원/계/좌

국민:656501-01-250453

농협:387-01-011911

예금주 : 소망의샘터



한결같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귀하신 나눔에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DdM** 또는  **NAVER**, **ZUM** 등 포털사이트 에서 소망의샘터 를 검색하세요.

2103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1번길 KT&G 408호(계산동 935-6)  
TEL:(032)541-4737 / FAX(032)541-4738 / <http://www.ever.or.kr>